

HOUSING NEWS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동문건설 경재용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남광토건, 사랑의 헌혈 캠페인

GS건설,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GS건설(대표이사 김갑렬)이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인 '2008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큐브 벤치(CUBE BENCH)와 이노 큐브(INNO CUBE)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독일)'는 'IF(독일)', 'IDEA(미국)'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다. 올해는 51개국 3200여 개 제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로써 GS건설은 세계 최고 권위의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지난해 'IF(국제 포럼 디자인상)'를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를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인 큐브 벤치는 상황에 맞게 의자의 길이나 각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또 욕실 수납장인 이노 큐브는 한국의 보자기(조각보)를 형상화해 간결한 비례감을 살렸고, 수납 제품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디자인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GS건설 원종일 주택기술담당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 주택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사의 역량을 널리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광토건, 사랑의 헌혈 캠페인

남광토건(대표이사 이동철)이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25일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임직원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인간 중심의 신 건설 문화 창조'라는 기업의 이념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생명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며, 나아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남광토건 임직원 외에도 같은 건물에 입주한 업체 임직원 2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한편, 남광토건(대표이사 이동철)은 국내 영업 담당으로 정만화 사장(사진)을 선임했다. 정 사장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국 국장 등으로 16년간 근무했으며, 온세텔레콤 사장을 역임했다. 남광토건은 "올해 경영 계획 수주 1조 5000억 원과 매출 8000억 원, 성장 이익 450억 달성을 위한 국내 사업 영업 경쟁력 강화와 플랜트 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에 따라 신규 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동문건설 경재용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좋은 아침 좋은 아파트 동문굿모닝힐'을 공급하는 동문건설 대표이사 경재용 회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경재용 회장은 그동안 성실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해왔으며, 지방 세정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경재용 회장은 지난 2002년에도 주택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데 이어 모범중소기업경영인상, 2004년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3자녀 지원 등 사내 우수한 출산 장려 제도 정립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동문건설이 12일 타운하우스를 위한 브랜드로 '윈슬카운티'를 론칭했다. 윈슬카운티의 윈슬(Winsle)은 '승리(Win)'와 '성(Castle)'의 합성어로 최고의 영예를 선사하는 고품격 주거 공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새로운 브랜드인 윈슬카운티는 이달 말 분양 예정인 파주 신도시 내 타운하우스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경남기업, 신임 총괄 사장에 정재영 氏

경남기업이 지난 25일 정재영(56·사진) 전 대우건설 전무를 대표이사 총괄 사장으로 선임했다. 정 사장은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1977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경영기획실장, 외주구매실장,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등 건설 관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건설 관리통으로 평가받고 있다.